



APR 2025

VOL. 276

▲ 댄스동아리 'AWP' 팀 4월 2일 총학 동아리 연합회가 주최하는 버스킹에 출연을 준비하고 있는 교내 댄스동아리 'AWP' 팀원들. 범상치 않은 포스가 풍겨 나온다.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왼쪽부터 김규나 사복3, 전지원 사복1, 김소연 영보 1, 이민서 영보 1, 원혜림 영보2 학우)

# KÓKKOS4

# 「2024 학생-교수간 공동프로젝트」 큰 성과

## 학술 논문 13편 KCI 등재지 게재, 교재도 발간

2024년 4월 시작한 「2024 학생-교수간 공동프로젝트」 사업이 큰 결실을 맺어 우리 대학 학우들의 학술 논문 13편이 국내 우수 KCI 등재지에 게재되었고 1개 팀은 교재를 출간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14개 팀, 74명 학우, 12명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13개 논문은 AI, 간호, 보육, 신학 등 각자의 전공에서 대두되는 현안 문제를 다루고 있다.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이하 컴소) 4학년 김예은, 남아영 학생의 연구논문 (지도 교수 양단아 교수), 「초해상도 이미지생성을 위한 SE Block과 Inception 모듈기반 ESRGAN 판별자」는 최근 발행된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지」 제30권 5호에 게재되어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 외에도 간호학과 학생들의 논문은 「간호와 혁신」(제29권 1호), 「간호와 보건연구」(제30권 1호)등에, 영유아보육학과는 「한국유아교육연구」(제26권 4호) 등 모두 KCI등재지에 게재되었다.

대학에 갓 입학한 1학년 학우들로 구성된 팀의 연구논문 「CNN 기반...운전자 상태 인식에 관한 연구」는 한국인공지

능학회 학술지에 게재가 승인된 상태이다. 이들은 컴소학과 1학년 강지수, 김수아, 신수아, 여환서, 이동연, 이정현, 한기준 학생이다. 성서학과 4학년 김영은, 정예은 학우와 2학년 김경남, 최인성, 황미숙 학우 팀은 안창선 교수 지도로 「신학 읽기를 위한 새로운 여정」(도서출판 선물) 교재를 출간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박가람 학생(간호 4학년)은 “전공에 대한 깊이가 생기고, 팀원들과 협업과 피드백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한국성서대학의 이 교육혁신사업은 매년 학술연구형 및 교재출판형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학생 주도적 연구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 지난 3년간 학생들의 논문 총 32편이 발표되었고 그 중 28편이 KCI 등재지에 게재되었다. 7건의 연구 결과는 교재로 출간되었다.

한국대학신문이 3월 27일자에 이 기사를 보도하였다.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76906>



학생 - 교수 간 공동프로젝트 학술제를 마치고 함께 한 참석자들

## 예배 등 경건훈련 강화 주문

교육과정정책자문위  
새 교육과정 개편 방향 제시

2026~2029년에 운영될 우리 대학의 새로운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첫 단계로 지난 26일 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가 복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장 최정권 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 회의의 새 교육과정에서는 1) 예배 등 경건훈련 강화, 2) 연차적으로 1학년 신입생에게 BRC를 필수과목으로 편성, 3) 전공 능력 극대화를 위한 「교수-학생간 공동 프로젝트」와 같은 고강도 비교과 과목에 학점을 부여하는 교과목으로 편성할 것 등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교육목표와 전공 능력의 연계성을 분명하게 제시할 것, 모든 서술을 목적지향적으로 하되 분명한 용어를 사용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위원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졸업생들이 우리 대학만의 색깔로 '성서대 출신은 다르다'는 걸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은 매 4년을 주기로 새롭게 개편된다. 앞으로 일정은 4월 4일 교육과정위원회가 개편편성 원칙을 수립하면 4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6개월간 학과별로 개편 연구가 진행된다. 개편안은 11월 17일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와 12월 5일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지난 회기 교육과정 (2022~2025)의 성과는 핵심역량과 전공 능력 모두 목표를 크게 뛰어 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 교육과정의 대상인 2025년 2월 졸업자들의 핵심역량은 성서적 세계관 8.44, 변혁적 리더십 8.32, 통섭적 사고 8.28, 실천적 전문성 8.45, 희생적 봉사 8.33, 공동체 통합 8.53 로 나타났다. '졸업생의 70% 이상이 '평균 70점 이상'을 받도록 한다는 목표를 무난히 초과 달성하였다.

전공능력 평가에서도 영유아보육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간호학과는 졸업생 전원(100%)이 각 전공 능력의 평가 항목에서 '중'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당초 달성목표는 「졸업생의 70% 이상이 '중' 이상」이었다. 성서학과는 졸업생의 89.4%가 '중' 이상, 사회복지학과는 96.14%가 '중' 이상의 평가를 받는 등 전공능력 달성목표를 월등히 뛰어 넘는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

## 허윤민 교수 개인전, 신작 31 점 갤러리보나르에서 4월 7일까지



▲ AI Mimesis(Acrylic on Canvas)

허윤민(영화속 그림읽기) 외래교수가 'Time to Shine'을 주제로 갤러리보나르에서 4월 7일까지 개인 전시회를 열고 있다.

허 교수는 50대에 느끼는 아쉬움과 빛났던 삶의 순간마다 새겨진 기다리는 마음을 'Baquet', '확산', '보여진 永', '남기다 曠' 등 31개 작품에 담아냈다. 보석의 영상성을 해체하고 욕망의 대상이 아닌 면면마다 담긴 빛의 찬란함에서 희망의 광채가 존재해 있음을... 모두는 각자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삶의 모난 면들은 닳아 매끄러워지고 더불어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던지지 희망한다.

갤러리보나르 위치: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 한강로 158번길 91

## 지역사회임팩트센터 신은지 씨 임용



지역사회임팩트센터(센터장 장인순)에 신은지 씨가 임용되었다. 신은지 직원은 의정부 열방교회에서 8년간 행정업무를 담당해 왔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맡겨진 직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감당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내외 지역사회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 2025 년 FT ‘말씀이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의 잔치, 서정인 대표,  
김동해 원장  
조정민 목사



▲ FT 여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찬양팀

2025년 FT(Faith Training)가 18일부터 이틀간 교내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말씀의 해’에 맞춰 주제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소서’이며 주제 성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시119:105)이었다.

최정권 총장은 개회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은 최고의 멘토였다며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로 만나고 멘토가 되어 주는 축복의 FT가 되라고 권면하였다.

강사들의 말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정인 대표(한국컴패션)** 부귀영화가 행복일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누릴 복을 주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는 생사를 오가며 골수 이식을 2번 하였다. 하나님께서 어린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살려 주신 것이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길 바란다.

**김동해 원장(명동안과)** 대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지난 날 실패한 3가지는 대학입시, 전공 선택, 그리고 취업 실패이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결론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것이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됨을 기억하고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조정민 목사(베이직교회)** 구원이란 그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욕구나 갈망에서 해방되고 부요나 가난을 떠나 자족함을 배운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향하는 방향과 목적을 갖게 하며 삶의 방식과 행동을 달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를 먼저 바꾸고 그것이 세상에서 능력을 일으키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주게 될 것이다.

##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두 즐거워야”

최정권 총장 권면  
2025-1 학기 개강예배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예배가 10일 낮 12시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최정권 총장은 권면을 통해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게 모두 즐거워야 한다. 공부 못한다고 자책하거나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생은 수많은 길이 존재한다. 똑같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밝은 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은 물론 어둡고 질게 흐린 날들도 살만하다고 느끼며 사는 새 학기가 되라”고 권면하였다.

박태수 교목실장이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롬4:17~25)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한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번 학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자”라고 전했다.

유준하 With총학 회장은 “새 학기를 맞아 총학과 학회가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불편함 없이 은혜와 사랑을 키워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 BRC 개강예배 “아침 일찍 시작의 날갯짓 펼쳐라”

AI 융합학부 신입생 전원 BRC 참여  
천마홀에서



▲ 강규성 교수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2025학년도 BRC 개강예배가 10일 오전 일립관 B101호에서 열렸다. 성서학과에 이어 AI융합학부가 BRC를 개설하여 이날 예배는 두 학과가 연합하여 드리게 되었다.

강규성 교수가 ‘발견’(누5:1~11)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비전이 바뀌고, 자신이 바뀌는 것을 발견해 가는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어 달라”고 전했다.

최정권 총장은 “매일 BRC 참석이 어렵다는 걸 잘 안다. 독수리가 창공의 제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은 새끼가 어릴 때부터 등지에서 벗어나도록 혹독히 조련한 결과이다. BRC에서 일찍 날갯짓을 펼쳐 용기와 행복이 하루 내내 이어지는 학우들이 되라”고 격려했다. 서효경 학우가 새 학기를 맞아 모두가 말씀 속에서 즐겁게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해 달라며 기도하였다.

BRC 지도 교수와 조교는 다음과 같다.

### 성서학과 - A반

- \* 지도 : 최사랑 교수(복음관 401호)
- \* 조장 : 임주만      \* 조교 : 강준구, 김미진, 박기범, 안은비, 황다애

### 성서학과 - B반

- \* 지도 : 조현진 교수(복음관 301호)
- \* 조장 : 서효경      \* 조교 : 김상윤, 남궁이레, 박예인, 최요나단, 황미숙

### AI융합학부 - C반

- \* 지도 : 강규성 교수(밀알관 천마홀)

## 일립생활관 입주 예배

김웅기 교수 말씀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께”

일립생활관(관장 김웅기) 입주 예배가 11일 오후 7시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김웅기 교수가 ‘성공적인 시작과 마무리’(창1: 26~31)로 말씀을 전했다. “모든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마다 복된 은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부 축제 시간에는 CCM가수 PEtER가 ‘예수 만유의 주와 ‘한걸음’ 등의 히트곡을 불렀으며 자신이 걸어온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했던 삶을 간증으로 울림 주었다.

이에 앞서 학우들은 학생식당에서 피자과 닭강정으로 만찬을 나누며 선·후배간 우의를 다졌다. 입주 예배에는 130명의 학우가 참석했다.



## 불신학우 35명 “예수 믿겠다” 결단

신 · 편입생 대상 전도집회서 회심



▲ CCC 송성은 간사가 신 · 편입생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

26일 오후 신·편입생 대상 전도 집회에서 불신학우 35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이날 전도집회는 로고스홀에서 CCC의 송성은 간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송 간사는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경험을 전하며 학우들의 결단을 호소하였다. 그는 “초중고 시절 주변 친구로부터 당한 왕따가 큰 상처였고 집에서는 부모님 간의 폭력과 불화가 나를 힘들게 했다. 낮은 자존감에 방황의 시간도 점점 늘어갔다. 대학 수련회에서 예수님께 의지하는 삶을 고백하였고 내 인생이 바뀌 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 간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참여하자”고 호소하였다. 이에 35명의 학우들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 드리겠다”고 결단하였다. 이 중 10명은 교목실에서 주관하는 신앙 양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로 신청했다. 10명 외 나머지 25명의 학우들도 개별 상담을 거치면 양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편입생 273명 가운데 81명이 불신자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43%인 35명이 결신에 응한 것이다. 지난 해는 93명이 불신 학우였고 그 중 41명(44.1%)이 구원으로의 초청에 응했다.

## 제 41 대 'With 총학' 출범식

유준하 회장  
“학교와 학부와 예배와 함께” 할 것

제41대 총학생회(회장 유준하)가 13일 로고스홀에서 인준식을 가지며 출범하였다. 유준하 회장은 취임사에서 “41대 'With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의 비전과 가치를 잘 지켜가면서 '학교와 함께, 학부와 함께, 예배와 함께'의 세 가지 공약이 잘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권 총장은 “학생회가 잘 운영되려면 총학생회 회비 납부가 관건이다. 워드총학이 열심히 일하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출범식은 교기 전달식과 함께 'With 총학생회' 임원진들은 모두 단상 위로 올라 학우들에게 인사하며 힘찬 출발을 다짐하였다.



▲ 유준하 회장(왼)과 최정권 총장



▲ 총학임원진이 단상에 올라 학우들을 잘 섬기겠다고 인사하고 있다.

# NSLB “우리는 한 학우도 포기하지 않는다”

## 교수학습센터가 이끄는 다양한 스터디 그룹들 ②

### 학습 교수들의 학습법 특강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나? 공부 전문가들의 「효과적인 학습법 특강」이 열렸다.

프로 대학생의 시간 관리 전략

윤혜진 박사 (교수학습센터장), 임성목 동문 \_ 24년 5월 28일 ~ 8월 30일(온라인 수강)

효과적 학습의 기본은 시간 관리이고 우선순위 결정이다. 학습 성공, 직장 성공의 길이다. 시간 관리 매트릭스, 노션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었다. 54명 참석, 만족도 96.2%

영어 기초 다지기!  
영어 자신감 UP!

조수희 강사 (강남 해커스 어학원 일반영어 및 TEPS 강사) \_ 24년 7월 4일

이 과정을 통해 토익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감을 얻었다. 28명 참석, 만족도 100%

Chat GPT로 학습효율 UP  
스트레스 DOWN

홍영일 교수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교육팀장) \_ 24년 12월 20일

“Chat GPT 사용에 부정적이었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 생성형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 24명 참석. 만족도 100%

### 러닝 프로젝트 페어 (Learning Product Fair)

이 페어는 성공한 학습 경험을 공유하는 학생들의 장터이다. 1학기는 **학과별 학습전략 가이드 공모전**을 통해 각 전공 특성에 맞는 학습 노하우를 발굴하고 2학기는 **과제물 수행과정과 전략 공유 공모전**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사례를 나누었다. 1학기 56명, 2학기 7명이 참여했다.

1학기 우수자 **우민영** 학우(사복 4)는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나만의 학습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학우들의 전략도 참고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2학기 우수자 **김민정** 학우(사복 3) “공부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공부방법이 어디가 강하고 약한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될 것 같다”며 좋아했다.



우민영(사복4)



김민정(사복3)

### Goal-in Project

여름방학 동안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계획서 작성부터 활동 인증, 피드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하며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점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한다. 35명이 참여했다.

우수생으로 선발된 학우는 **서하은** 학우(사복 4), **한승천** 학우(성서 3)이다. **서하은** 학우는 “컴퓨터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고 아예 시도하지도 않았을 포토샵도 할 수 있었다. 시험은 합격하지 못했지만, 학습을 통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다룰 방법을 얻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하은(사복 4)



한승천(성서3)

## 대학총장 조찬기도회 21 일 밀알관 개최

“복음전도자 키우는 사명을  
잘 감당시켜 줄 것”

2025년 기도회 회장 최정권 총장 선출

대학총장 조찬기도회(회장 김경수)가 21일 우리 대학교 밀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정권 총장이 ‘두 번째 돌판(출34:1~9)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1년차 총장으로서 3가지 짐(언어, 기부금, 미래)이 있다며 첫째 짐은 아직도 힘든 ‘대학의 언어’라고 말했다. 끝없는 평가지표와 각종 숫자에 담긴 ‘대학의 언어’는 아직도 낯설다고 했다. 두 번째 짐은 기부금 모금의 짐이다. 그동안 담임 목사로 기부금을 주던 입장에서 지금은 기부금을 요청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 마지막 짐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다.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 지금과 같이 대학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마음의 짐이 가장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돌비를 직접 지고 오라고 요구하셨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도 져주실 것이며 복음전도자를 키우라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 통성기도를 인도한 총신대 박성규 총장은 “갈등 가득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해지고 헌신하는 주의 제자가 많이 양육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감신대 유경동 총장은 “한국의 지도자와 미래를 위해, 침신대 피영민 총장은 한국 교회를 위하여, 성결대 김상식 총장은 기독교 대학이 캠퍼스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였다.

기도회에는 나사렛대 김경수, 총신대 박성규, 성결대 김상식, 강남대 윤신일, 대신대 최대해, 서울신학대 황덕형 총장을 비롯해 21개 대학의 총장과 관계자 40명이 참석했다.

## 대학총장기도회 회장에 최정권 총장 선임

대학총장조찬기도회 총회는 21일 정례기도회 후 가진 총회에서 25년도 회장으로 최정권 총장을 선출하였다. 임기는 1년이다. 대학총장 조찬기도회는 2003년 결성됐으며 23년째 이어오고 있다.



▲ 앞줄 왼쪽부터, 대전신대 안주훈 총장, 대신대 최대해 총장, 칼빈대 김근수 前 총장, 최정권 총장, 햇볼트리니티 오덕교 총장, 서울장신대 문성모 前 총장, 성결대 정상훈 前 총장, 뒷줄 왼쪽부터 침신대 피영민 총장,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 한세대 최진탁 부총장, 나사렛대 김경수 총장, 아신대 정호호 前 총장, 강서대 임성택 前 총장, 강서대 김용재 총장, 부산장신대 김용관 총장

## 취·창업지원센터 청년들이여 세상에 도전하라!

KBU 글로벌 챌린지  
창업동아리 팀별 모집 중

취·창업지원센터(센터장 문지예)가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의 'KBU 글로벌챌린지'와 창업 역량에 도전할 'KBU 창업동아리' 모집을 통해 진취적인 용기를 펼쳐 갈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 KBU 글로벌 챌린지: 청년들이여, 세상에 도전하라!

전공과 관련된 해외 현장과 기관 등을 찾아 시야 확장과 글로벌 감각 등을 키워 줄 'KBU 글로벌 챌린지'는 팀별로 참여할 수 있다. 항공료(1인 최대 150만 원)와 여행자 보험을 지원하며 세계관 확장과 창의적인 역량 등을 높일 수 있다.

2024년 'KBU 글로벌 챌린지'는 영유아보육학과 '노아' 팀이 일본 유보통합 사례로 시텐노지대학, 히덴인 어린이원, 나카노시마 어린이 도서관을, 간호학과 '약과방' 팀은 호주한인간호협회(KNAA),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등에서 간호제도 비교와 개선 방향을 탐색하였다.

- ▲ 기간 : 4월 18일까지
- ▲ 대상 : 재학생(팀당 4~6명)
- ▲ 접수 : 취·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KBU 창업동아리: 일상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일상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보는 프로그램이다. 팀당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창업 관련 분야 실무자와 멘토링 기회 등이 제공된다. 2024년 'BuckIT\_LAB' 팀은 자영업자를 위한 SNS 자동 업로더 개발 아이디어를 앱으로 구현, 초기창업패키지 준비까지 이어졌다.

- ▲ 기간 : 4월 21일까지
- ▲ 대상 : 재학생 (팀당 4인 이상, 4팀 선발 예정)
- ▲ 접수 : 취·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과테말라 사카테페케스 주 시장과 간담회

우리 대학교와 직업교육 협력을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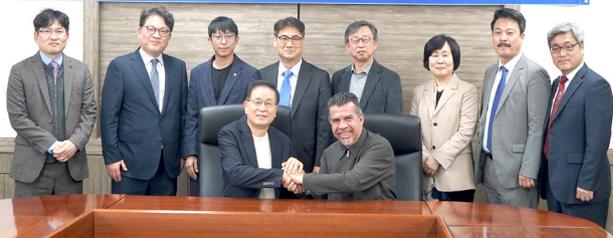
국제교류센터(센터장 박태복)가 24일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남미 과테말라 사카테페케스 주 시장과 밀알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카롤로스 시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율은 10%에 불과하다. 고교 졸업자에게 다양한 직업 교육 등으로 미래에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하였다. 과테말라에서 선교적 사명을 갖고 한미학교를 운영하는 김춘목 목사가 동행하였는데 김 목사는 열악한 학생들에게 직업교육 강화가 우선 필요하다고 협력 방안을 요청하였다.

사카테페케스 주는 과테말라의 북부에 위치하며 인구 9만에 전체 90%가 60세 이하인 작은 소도시다. 간담회에는 최정권 총장과 주요 보직자, 과테말라 사카테페케스 주의 카롤로스 시장과 한미학교 김춘곤, 권오진 목사 등이 참석했다.

### 한국성서대학교 | 과테말라 시장(한미학교) 교육국제화 협력을 위한 간담회

일시 :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오후 4시 | 국제교류센터



▲ 최정권 총장과 과테말라 사카테페케스 주 카롤로스 (앞줄 오른쪽) 시장이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함께 하였다.



최정권 총장

## 3가지 짐

얼마 전 기독교대학 총장 모임이 학교에서 열려 16개 대학의 전현직 총장님 22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한 설교를 총장의 편지에 실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돌까지 마련하시고 직접 써 주셨는데 두 번째 돌비는 왜 모세에게 준비해서 오라고 하셨을까? 메세지는 리더의 짐 중에 어떤 짐은 하나님이 없애주시지만 어떤 짐은 하나님이 지라고 주신 짐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총장이 된 저는 3가지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짐은 언어입니다.** 면장도 알아야 한다는데 총장의 길에서 입에 익지 않은 언어와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문교부 세대인데 이제는 교육부를 암기해야 했고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의 의미와 정량 평가가 나타내는 숫자의 의미를 배워야 했습니다. 학기 시작 전에 신입생 총원을 학기가 시작되면 중도 탈락을 막아야 하고 졸업 시즌에는 취업률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단어에 대학의 존폐가 달렸다는 사실에 그 의미가 갈수록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은 기부금입니다.** 총장이 되기 전 평생 목회자로 살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요구해 보거나 현금을 강요해 본 일도 없습니다. 대신 한국과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누군가를 도왔고 도와 달라는 요청에 응대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되고는 바뀌었습니다. 동기 목사님들이 시무하는 교회에 찾아가 기부금을 요청했고 모르는 기업인 앞에서도 학교 기부금을 달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 때마다 상처 받은 건 제 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보다 더한 문제는 제 안에 이 문제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

성 평가를 만들고 저를 설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짐은 미래입니다.** 미래에 관한 짐은 3가지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학교는 어디에서 있을까? 라는 미래가 가장 큰 짐입니다. 이유는 현재 지역 대학이 겪는 문제들이 수도권 대학

에도 찾아 올 건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들어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소규모 기독교 대학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만일 모세의 짐 이야기가 여기서 마치면 우리가 더 힘들겠지만 모세의 후반부 이야기는 깊은 두 가지 소망을 줍니다.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대학의 총장이 일반 대학 총장과 다른 점은 하나님입니다. 짐을 지게 하신 하나님은 그 짐을 혼자 지고 가게 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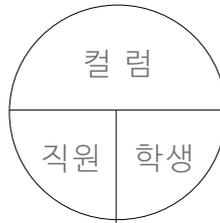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간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이 쓰신 율법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몽학 선생이 되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게 살 위대한 말씀이 됩니다.

총장인 우리의 대학 안에 있는 미래 세대를 복음 전도로 키우고 한국을 살리는 인재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총장으로 세우시고 그 짐을 맡겨 주신 것인지를... 먼 길을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학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장의  
편지



김덕현 과장(전산지원팀)



배승주(사회복지학과 3)

## 정보 접근 용이성 VS 개인정보 유출

과거 도서관에서 18년 근무하며 가장 많이 접한 용어가 '정보 접근 용이성'이다. 이용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인프라 및 검색 시스템 구축이 도서관 사서의 주 업무이기도 하다. 시대의 변화로 구글, 네이버 등은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크롤링(Crawling), 스파이더(Spider), 봇(Bot)과 같은 기술로 끊임없이 정보를 조합, 분석하여 색인 데이터를 양산해 낸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명과 암으로 극명하게 나뉜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술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카운터 펀치가 되어 돌아오는 상황이다. 현재는 전산팀에서 3년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2024년에는 우리 대학이 비교적 준수한 진단을 받았지만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실상은 암담하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 개정과 이후에 시행령 또한 많은 변화를 거쳤다. 권고 수준의 사안들이 철저히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무심코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 대표적인 예가 모니터에 부착된 많은 포스트잇,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첨부파일 업로드 등의 행위이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보다는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고유식별 정보와 민감정보 등이 그대로 유출되는 것이다.

서두에 구글, 네이버 등의 업체가 색인 데이터를 양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실시간으로 누군가가 부주의하게 올린 개인정보들이 유유히 인터넷상에 표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보다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 기아타이거즈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다

2025년 3월 22일(토), 한국프로야구 정규시리즈가 시작됐다. 겨우내 이 날만 기다린 건 나만이 아닐 것이다.

야구가 내 인생에 처음 들어온 건 2017년 봄이었다. 삶이 무료했던 중학교 1학년의 나는 아버지와 동생이 응원하던 기아타이거즈를 함께 응원하며 야구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운 좋게도 꾸준히 안 좋은 성적만 내던 기아타이거즈는 그 해에 우승했고, 나는 기아타이거즈라는 팀에 푹 빠지게 되었다.

야구를 즐겨보다 못해 직접 하고 싶어진 나는 친구들을 모아 동네 청소년 야구단을 꾸렸다. 팀 유니폼도 주문하고 나름 진지하게 팀 활동에 임했다. 감독 겸 1선발 투수 겸 4번 타자를 실력 아닌 권력으로 얻어낸 15살의 내가 이끈 팀은 동네 야구 리그에서 4팀 중 4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그 해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 내가 만들었던 야구 팀처럼 그 해 이후 기아타이거즈도 우승 이후로 2023년까지 암흑기를 겪게 되었다.

응원하던 팀의 성적이 좋지 않자 어린 나는 곧바로 야구와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2023년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고, 한국프로야구를 좋아하는 동기들을 만났다. 그들과 야구 이야기를 하며 나는 다시금 마음속 무언가가 타올랐고, 그 해에 야구 관람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응원한다고 해서 기아타이거즈가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응원했지만, 기아타이거즈는 6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다. 그럼에도 나는 이전처럼 응원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2024년, 기아타이거즈는 마침내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이뤄내며 7년 만에 13번째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다.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시즌 초반 저조한 성적을 보이며 이 글을 쓰는 시간, 공동 8위로 끝썩었다. 하지만 나는 올해도 응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좋으니까. 좋아하는 것에 이유가 있나!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회 담임)

## 눈부신 삶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로 앞을 바라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추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비추는 새벽 빛은 지난 밤의 모든 어두움도 물러가게 합니다. 은혜의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시편 27:1은 선포합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 선언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밝히는 약속입니다. 그 빛이 비친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희망이 자라날 것입니다.

눈부신 삶은 외적 성공이나 풍요로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자리에 비친 은혜의 빛을 인식하고 빛 안에서 걷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은혜의 빛을 본 사람들은 다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더 큰 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눈부신 이유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사랑하는 성서 가족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은 우리 자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눈부신 삶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29

### 4 월의 제비꽃 임경미

모두가 눈부신 벚꽃에 마음 뺏길 때  
낮은 곳 후미진 곳을 찾는 이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비꽃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늘진 곳에서도  
먼지 속에서도  
부러질 것 같은 줄기를 끌어안으며  
열심히 피어나고 있었다

추위도  
바람도  
사람들의 무심함도  
문제 될 게 없었다

피어남,  
그 떨림에 집중하는  
제비꽃 향연,

어느덧 그도  
보랏빛 물결이 되어 있었다



<https://cafe.daum.net/deulflowerhome/qy6r/1158?q=%EB%8F%8C%ED%8B%88%EC%82%AC%EC%9D%B4+%EC%A0%9C%EB%B9%84%EA%BD%83&re=1>

눈부신 꽃만 꽃이 아니다. 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꽃이다. 꽃은 눈높이나 눈 위에서도 피어나지만 눈 아래에서도 피어난다.

크고 진하고 화려한 꽃들은 알려주기도 전에 환호하지만, 작고 연하고 소박한 꽃들은 일일이 알려주어야 주목한다. 쭈그리고 앉아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그들만의 우주, 오늘도 작은 꽃들이 그들의 우주를 가득 채워간다.

봄까치, 봄맞이, 냉이, 꽃다지, 광대나물, 꽃말이, 제비꽃, 민들레, 썸바귀, 고들빼기... 작고 아담하고 양증맞은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나는 4월, 무릎 여행을 떠나야겠다.

## 길 최정권



설교자는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를 고민하는데  
그림에 눈 뜨고 나서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그릴지 어떻게 그릴지를...

미술관 벽에 걸려있는 그림 속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바다를 안고 걸을 수 있는 해안 길, 숲속의 오솔길, 꼭 숨차게 올라가야 하는 포천의 자작나무 숲길.

회색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길, 모리아관 앞에서 멈춰야 하는 벚꽃 길

그래서 그려봤습니다.

신을 벗어

숲 한편에 밀어 넣고

겨울을 견디고 봄을 기다리는

길 위를 걷습니다.

빠진 머리카락과

새로 난 머리카락 사이로

바람이 밀려오는데

어깨의 짐은 여전한가 봅니다.

돌봄 환경 개선사업에 선정 후 새롭게 단장된 실내 모습



대어린이집

### 교육·돌봄 환경 개선 사업 선정

지난 해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의 교육·돌봄 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재단장을 실시하였다. 우리 어린이집은 원내 현관 천장과 유희실, 계단 바닥 교체를 진행하게 됐다. 공사는 2월 15일부터 영유아 등원이 없는 주말을 이용하여 유희실과 복도, 계단 바닥 교체 및 현관 천장 공사까지 잘 마칠 수 있었다. 덕분에 아이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과를 보낼 수 있는 산뜻한 공간으로 재단장됐다.

어린이집은 앞으로도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작업을 조성하면서 건강하고 씩씩한 유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갈 것이다. [믿음반 변송이 교사]

한글배우기에서 글을 배우고 있는 어르신들



편노복합사회복지관

### 어르신 무료 교육 프로그램

어르신들의 여가를 돕는 다양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0명이 스마트폰 교육, 노래교실, 트로트 댄스, 한글 교실 등으로 활기찬 일상을 즐기고 있다. 스마트폰은 2:1로 기본에서 기능 활용까지, 한글교실은 초·중급반으로 나뉘어 일상 속의 한글 배우기로, 노래와 트로트 댄스는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활력까지 크게 높여주었다. 어르신들은 “새로운 재미를 찾았고 친구도 사귀어 좋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월계복지관의 무료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를 보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총무팀 이은정 주임]

신입 유아의 적응을 도와 줄 도란도란 차담회가 진행중이다.



문원어린이집

### 도란도란 차담회

17일부터 3일간 부모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도란도란 차담회’로 열린 간담회는 적응 기간을 보낸 신입 유아에 관해 부모와 자녀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심리적 위안을 받는 자리이다.

적응 과정에서 궁금했던 점, 연령별 특성에 따른 놀이 발전과 확장 등으로 대화가 이어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하루의 일과 등 어린이집 생활도 알게 되었고 발달 단계별 상황을 예시로 잘 설명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궁금증이 다 풀렸고 가정과 연계한 놀이의 중요성까지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목련반 호하나 교사]

말씀 나눔 소그룹 사랑방 모임의 활발한 모습들



성서대학교

### 사랑방 모임

지난 3월, 성서대학교회 사랑방은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봄에 맞춰 개강하였다. 사랑방 모임은 성서대학교회가 지향하는 말씀 나눔 소그룹으로 말씀 안에서 경건을 지속하고 기도 제목까지 나누며 서로를 섬겨주는 은혜 가득한 모임이다.

이번 사랑방 모임에는 30대 이상 미혼 청년 사랑방 모임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 사랑방 모임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같은 연령대가 함께 모여 신앙 성장과 삶의 여러 상황에도 함께 공감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박효민 목사]

교사들이 신입 원아에게 놀이로 적응을 돕고 있다.



상계백병원

### 신입 원아 적응 프로그램

3월 4일부터 5일간 신입 원아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부모와 함께 교실 탐색 및 놀이하기 등의 일과 시간도 조정해 가며 적응을 도왔다. 이 밖에도 원아 가족들은 원장님과 티타임으로 어린이집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교육철학과 자녀 발달에 적합한 각종 정보와 조언까지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프로그램을 마친 아이들은 안정 속에 자신감을 얻고 어린이집에서의 활동을 즐기면서 긍정적인 추억을 쌓아가게 되었다. 교사들도 “아이들이 잘 적응하도록 가정에서 협력해 주어 이같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학부모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맑은반 이진아 교사]

서울형 키즈카페 중평공원점 내부 전경



노원유아종합지원센터

### 서울형 키즈카페 중평공원점

서울형 키즈카페 중평공원점이 영유아와 어린이, 보호자가 이용하도록 신체놀이 공간, 놀이 돌봄서비스, 책 읽터 등 다양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을 통해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지원한다.

4월에는 ‘설레는 봄’ 주제로 나만의 봄 꾸미기 활동으로 봄의 변화와 감성 체험 예정이다. 키즈카페가 노원구 관내 부모들의 신뢰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요금은 어린이 1인당 2천 원, 보호자 1천원이며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김민정 보육전문요원]

학부모와 교사가 보나 티타임을 갖고 있다.



상계5동어린이집

### 2025년 보나 학부모 티타임

24일~27일까지 4일간 보나 학부모 티타임이 이뤄졌다. 이 모임은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자녀의 교육과정과 생활을 이해해 가는 시간이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자녀의 성장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교육과정, 정책, 목표까지 이해하고 공감할 기회가 됐다. 모임 통해 부모가 교육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자녀에게 어떤 교육적 활동이 좋은지 고민하는 과정이 자녀의 학습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운영위원들이 운영계획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늘사랑어린이집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3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선출과 예결산 및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원장의 인사와 운영위원 소개, 연임 및 신입 위원과 만남으로 이어졌다.

위원들은 어린이집과 협력적인 관계로 영유아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요청한 건의 사항도 일부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신나는반 최호정 교사]

아동들이 함께 신체활동을 즐기고 있다.



월계지역아동센터

### 놀이 체육활동

수요일마다 2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놀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성과 자신감을 높여줄 놀이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신체활동과 놀이는 미디어 의존이 높아지면서 운동량 부족에 시달리는 아동에게 운동 능력 향상과 상호작용 경험 및 규칙 속에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 조절까지 큰 도움을 준다.

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은 “다양한 구기 종목이 우리를 신나게 이끌고 놀이 체육인 게임, 숨바꼭질, 술래잡기, 탁구공, 사진을 찍어요 등의 활동도 병행할 수 있어 즐겁다”며 긍정적인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해옥 생활복지사]

# 「성서대학동기운동」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동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5년 2월 21일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a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교회(반세호 목사)	2173만원(운영)	김조자(간호학)	200만원(장학)
선교기부금	805만원(선교)	정휘진(법인사무국)	101만원(운영, 장학)
임사라정	428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홍콩중앙교회	356만원(운영)	박훈희(AI)	100만원(컴소)
아산사회복지재단	300만원(장학)	백승우	100만원(운영)
김승례(한국성서대학원)	258만원(운영, 장학)	햇살종합건설	100만원(장학)
사회복지대학원 동문회	210만원(장학)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100만원(장학)
강우정.강 진(이사장)	200만원(운영)		

### 약정자 명단

<b>동문 및 가족</b>	1구좌 강성철 이수진 조윤경 김성아 백인애	1구좌 김미영 이은영 진달래	<b>평화교회</b>
1구좌 강정희 강주옥 권순길 김순화 김은천 김중숙 박문홍 손진규 이미정 이현우 최진희 탁국현 황승호	2구좌 강은덕 김남숙 김미숙 김성숙 문순용 박유순 신주현 여진옥 연성희 유효진 이동훈 이선미 이용구 이은영 이혜란 이희경 전옥순 조윌이 주현진 최유승 김승희 임정용 허 정 최문정 권민석 김희선 박인규 송희경 윤수호	2구좌 오철송 전영호	1구좌 안지선
2구좌 김정복 신화영 임은희 홍진옥 홍해주 /등대학교회	5구좌	10구좌 현우석	<b>일 반</b>
3구좌 박문용 우중엽 /좋은교회		20구좌 김승옥	1구좌 구필래 송수용
5구좌 강경옥 이기훈 최경환		100구좌 정휘진	2구좌 홍춘호
10구좌 박예찬		<b>부설기관</b>	10구좌 김옥례
<b>재학생 및 가족</b>	<b>교직원 및 가족</b>	2구좌 진양희	20구좌 류동원 박경혜
		5구좌 박연희	<b>단체 및 기관</b>
		<b>권선제일교회</b>	1구좌 주님순교회
		1구좌 이상규	2구좌 도새기팜

### 기부자 명단

<b>동문 및 가족</b>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권호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선정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 진 이진경 이채녀 이철순 이학준 이해릴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해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은희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조민을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주진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차나리 채유신 채종원 천난희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수 최승진 최윤석 최중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하수현 하 진 한경순 한상장 한해우 허영숙 홍선호 홍성대 홍정실 황승호 황예린 설에스더 황보혜영 열매맺는교회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상갈 이영애 이예원 이우진 이유미 이우진 이은애 이의선 이재은 이종임 이종희 이현우 임수경 임은령 임은희 임주영 장유정 장은경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소정 조은별 지더은 최수지 최인경 최혜진 최호정 탁명화 탁윤석 한민수 허춘선 홍진옥 홍해주 황인숙 등대학교회	3만원 고은영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윤정 김재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양연선 우중엽 윤문순 이길순 이다윤 이안나 이윤성 이주연 이혜성 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정슬기 차주엽 최소린 최양서 탁현정 황영숙 좋은교회	<b>재학생 및 가족</b>
5천원 김남해 김미숙	1만원 강나경 강순성 강신용 강애술 강옥경 강은혜 강재현 강정민 강정희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광미화 광원근 구분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선 권순길 권순용 권슬기 권윤희 권정인 권희조 금동욱 금필규 김기영 김도호 김중완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열 김민정 김민을 김병렬 김선근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요섭 김유미 김유현 김은진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혜 김용환 김일준 김재현 김정희 김 진 김진숙 김진영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희석 나선영 남범수 남성희 노정현 노한나 도 만 류요한 류한나 류희정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유복 박재숙 박재신 박종주 박지영 박창민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유미 서지혜 서진희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민규 송바을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연정 신영옥 신은혜 신지는 심두한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엄미자 엄보영 연현숙 오세천 오찬미 오채영 오아름 우현아 원운희 유미정 유수정 유영진 유주연	1만원 권영희 김민서 김혜미 나예린 류가환 문정원 박문경 박한을 송지민 양은성 이다원 이동기 이미숙 이상란 이상영 이수진 이연신 이정문 이하람 이혜정 임동화 장연정 전계화 지중배 홍장훈	2만원 강은덕 김현중 광은혜 권영진 권윤주 김미숙 김미옥 김신미 김선옥 김정숙 김지혜 김창환 김현정 김형태 박명규 박유순 송동식 송세희 신동숙 신주현 여진옥 연성희 오영미 이경민 이동훈 이미영 이선경 이선미 이승진 이승찬 이은영 이혜란 장영순 전옥순 정인숙 조복임 조윌이 주현진 최경애 최영숙 최창호 함은애	3만원 박미영 박보봉 배정숙 전희문 최정규 황미숙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고난홍 고성호 광지윤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감규리 김동원 김미나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김영태 김예경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중재 류충열 박문홍 박민주 박재송 박정연 박주영 박혜숙 성성은 소경숙 송만호 송인성 신정섭 신화영 안선례 양연주	4만원 노민지 박주는 배정환 신은진	5만원 강경옥 김기숙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유양숙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이정균 이지은 최경환 최송희	
		6만원 정동주	<b>교직원 및 가족</b>	
		10만원 김동관 김선옥 김장교 김중숙 김진만 박예찬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이정원	5천원 김봉재 김 희 박태복 이소연	
		11만원 유선미	1만원 강신애 광한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중현 김지환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명우 박묘서 박연지 박주양 서광철 양승원 유성준 이정은 이지민 장경순 전광선 전귀선 정현아 이수빈 진달래 허윤민 요시다고조	
		22만원 성나표	258만원 김승례	
		100만원 백승우 이례장학 햇살종합건설	<b>1만5천원</b> 반우형 임수아 하희수	

기부자 명단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세원 김장호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이은영 장길정 정지순 정순애 정은상 조철남 최난영 한상만 한정숙	<b>동광교회</b> 1만원 김복례 한미희	1만원 강동형 홍성호 2만원 김일섭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황영수 강명옥 권소영 김미금 김옥석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박기숙 박명숙 박수명 박재균 서병준 서성원 안은숙 이일신 이재한 이태일 정주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행복한교회
2만5천원 문지예 민경은 배민정 전영호	<b>밀알교회</b> 1만원 서효정	<b>어린이교회</b> 1만원 김정희 2만원 한지화 3만원 임윤창 어린이교회 7만원 이정선	3만원 박미라 장문석 5만원 석지현 이천하 주은자 10만원 김옥례 서미혜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40만원 박순정 428만원 임사라정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유수연 추연진	<b>삼일성서교회</b>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한금순	<b>일동성서교회</b> 1만원 유현석 2만원 김의남 박문수 3만원 왕순희 5만원 표길홍	
3만5천원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유다운 윤혜진 정지용	<b>서문교회</b> 1만원 강선에 윤인호 20만원 서문교회	<b>장자교회</b>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b>단체 및 기관</b>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목양교회/무진인내서날 /주님순교회/행복한교회
4만5천원 김덕원	<b>성서대학교회</b> 9천원 오경모 이경한 이주현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는 이대영	<b>주향교회</b>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외식산업 /도새기짚/동신자원 /바르고복된교회/말방교회
5만원 구광면 김미숙 김성호 김원빈 박상민 장정순	1만8천원 강유진 고경숙 권은정 김문정 김봉춘 김사천 김상은 김성은 김성철 김애숙 김인영 김일선A 김일선B 김지윤 김현미 김희현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인숙 박찬순 박태수 서영우 서 훈 석경순 송형기 안봉숙 용정자 유부자 윤재필 이경미 이무현 이소정 이정숙 이정자 이정환 이종욱 임용택 장근문 장기영 장은정 장진희 정갑순 정나영 조병하 조정선 최명희 최은석 최인숙 한성실 황서린 황시은	<b>중앙성서교회</b>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최영란 2만원 신영옥 강영애 신한성 이준구 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5만원 김옥자 이경식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3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레트&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구리중앙교회 /도봉성산교회/두암산연(주) /상록교회/성복중앙교회 /의정부제일교회 /전주서부중앙교회 /청평교회/평안교회(신병수) /전하석/((주)소원기건 /만나교회/인천제2교회
6만5천원 권순범	2만7천원 선종인 최요한	15만원 이혜선 24만원 황인돈 김순자	4만원 풀랜팅시즈 5만원 다드림교회/사랑샘교회 /예일에드컬 /한일성서교회/행진교회
7만5천원 임환석	3만6천원 고미숙 김덕현 김동석 김민자 김배열 김은숙 김인자 김희자 박 선 박선하 박주형 반혜민 반해성 오치숙 윤도진 이로선 이영희 이인하 최호정 현호민	<b>퇴계원제일교회</b>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10만원 (주)주 안 100만원 세이해암학술장학재단 210만원 사회복지대학원 동문회 300만원 아산사회복지재단 356만원 흥풍중앙교회 805만원 선교기부금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성경 김소희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태용 배진형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성아 이소정 이슬기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영태 최은희 김정원(신) 김정원(영)	4만5천원 김주아 김효정 노봉환 박은경 유희창 최강희	<b>평화교회</b> 1만원 안종민 안지선	
11만5천원 신금주 최사랑 최옥열	5만4천원 반세호 송재철 이숙영 이정임 한순애	<b>풍암교회</b> 1만원 윤은정	
12만원 김용기	7만2천원 김유미 심화심	<b>함평대동교회</b> 1만원 김희경	
13만5천원 김덕현 한진호	9만원 강성훈 권경만 권태원 김용희 김원태 박세건 박은유 이경신 이은실 최대만 한진호	<b>화도드림교회</b>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15만원 안정선	10만8천원 김현석	<b>효성교회</b> 1만원 진경숙 진은숙	
15만5천원 권경만	13만5천원 고무현	<b>일반</b> 1만원 구필레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양권 김영석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자성 박해숙 서민석 송수용 송유정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금례 유해연 유화실 이관진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헌 이현수 조동빈 조목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승 최경숙	20만원 (주)주 안 100만원 세이해암학술장학재단 210만원 사회복지대학원 동문회 300만원 아산사회복지재단 356만원 흥풍중앙교회 805만원 선교기부금
20만원 김승욱 김창원 박 선 박태수	16만2천원 최선희		
25만원 임지영	23만4천원 진연호		
27만5천원 이강동	36만원 박은아		
35만원 최선희	45만원 무 명		
40만원 김영숙	2173만원 성서대학교회		
100만5천원 정희진	<b>성서선교회</b> 1만원 윤무표 2만원 금촌성서교회 3만원 푸른동산교회 5만원 동두천성서성김교회 10만원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		
200만원 김조자 강우정 강 진	<b>세빛교회</b> 5만원 세빛교회		
<b>부설기관</b>	<b>수원교회</b>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하예 김효진 유희주 이유리 이은정 임재택 호한나			
2만원 윤종찬 진양희 허성보			
3만원 구세란 권효진 문유나 박천순 안미희 오윤아 유정현			
5만원 박연희 이인경 이지연 차도영			
6만원 장나혜			
7만원 김선화			
10만원 권경아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35만원 오동준			
40만원 차 건			
<b>권선제일교회</b>			
1만원 이상규			
			누계(20250301~20250320) 35,209,070

한국성서대학교 3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11,357,700원)

임사라정 (일반) 4,277,700원 / 사회복지동문회(동문회) 3,100,000 / 김승례(재학생) 2,480,000  
백승우(동문) 1,000,000 / 김영수(일반) 400,000 / 이정원(일반) 100,000

약정 후원자 (합계 69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8,280,000원)

32구좌 박미래(일반) / 10구좌 장은정, 박예찬(동문) / 5구좌 김남숙(일반) / 3구좌 고윤정(교직원), 오윤아(동문)  
2구좌 이재현(일반) / 1구좌 김덕현(교직원), 송유정(일반), 유희주(일반), 진달래(교직원)

일시납 누계(2024.3.1~2025. 3.21) 11,357,700원 약정자 누계(2024.3.1~2025. 3.21) 8,280,000원